

# “광주·전남 장수기업 가업승계 위해 세제개편해 달라”

### 광주·전남 중기 대표 70세 이상 1500여 명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등 실효성 낮고 열악한 경영환경에 전문 경영인 초빙도 어려워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견인 장수기업 지원 절실

광주·전남 중소기업계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의 산업화를 주도했던 1세대 기업인들의 고품격으로 가업승계가 중소기업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지역소멸 위기 속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장수기업의 역할은 중요해졌지만, 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자칫 폐업이나 매각을 할 경우 사회·경제적 타격도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가업승계 문제는 지역경제계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계는 22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광주전남 가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광주전남 가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30년 이상된 기업일수록 고품격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더 체면하면 기업들의 도산과 폐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가업승계 지원세제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대표자 개인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영과 직접 관련된 주식, 토지·건물 등의 자산

에만 적용돼 부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이 후계자가 없어 폐업하는 것을 막고자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한 것처럼 우리도 기업들이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해 투자를 늘려갈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중소기업 대표 중 70세 이상은 15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중소기업의 78.4%가 승계를 통해 기업을 이어가고 있으나, 대기업과 달리 열악한 경영환경으로 전문경영인을 초빙하기 어려워 자녀 승계를 통해 기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또 장수기업일수록 매출액과 자산이 급증하고, 일자리 창출능력 및 법인세 부담능력도 높다. 중소기업보다 가업승계 절차가 까다롭고, 장수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매출액은 약 9배, 고용인원은 약 8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지역소멸 위기 속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장수기업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2020년 최초로 수도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계가 ‘광주전남 가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뒤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고, 인구소멸 위험 지역 비중도 2013년 32.8%에서 지난해 46.7%로 급증했다.

무엇보다 지역 경제력을 나타내는 지역 내 총생산(GRDP)은 수도권의 경우 2014년 49.6%에서 2020년 52.5%로 늘었으나, 광주·전남은 같은 기간 6.34%에서 6.18%로 감소했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수기업 육성이 절실하다.

하지만 기업들은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요건을 충족

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와 ‘가업승계 공제요건 중 사후관리 요건 유연화’,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장성의 한 제조 중소기업은 시대변화의 흐름에 따라 신산업에 진출했으나, 업종변경 제한요건 장벽에 가로막혀 가업승계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이 업체는 육심자재를 제조하는데, 주력제품은 플라스틱 자재로 관련법상 ‘중분류 코드 22’에 해당한다. 새로운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절수형양

변기는 ‘중분류 23’으로 신사업 매출이 증가해 주력 사업으로 성장하면 가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대표가 사망해 승계를 한 뒤 해당 매출이 증가하면 가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기업이 과도한 세금을 못 버티고 경영을 포기하면 기업이 책임 지던 일자리, 세금, 수출 등은 사라진다”며 “이처럼 기업이 개인의 자산이 아닌 우리 사회의 자산인 만큼, 기존에 있는 제도라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기업승계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드리다”고 호소했다. /글·사진=박기용 기자 pboxer@

## 배추 한 포기값 4000원 아래로...2주새 11% 내려

### 무·오이·애호박 등도 내림세 김장철 앞두고 양파·굴 상승

출하량이 늘어난 배추 1포기 가격이 2주 새 11% 하락하며 4000원 아래로 주저앉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1일 기준 광주 양동시장에서 소매판매된 농산물 가격을 조사한 소식지 ‘얼마요 2222호’를 22일 발행했다.

이날 기준 배추 한 포기 값은 3610원으로, 2주

전(4660원)보다 11.0% 내렸다. 이는 1년 전(5000원)보다 27.8% 하락한 가격이다.

마찬가지로 생산량이 증가한 무 한 개 값도 2860원에서 1930원으로, 2주 새 32.5%나 내렸다.

풍년을 맞은 단감 10개 가격은 9870원으로, 2주 전(1만2300원)보다 19.7% 떨어졌다. 1년 전(1만4000원)보다는 29.5% 폭락한 가격이다.

취청오이 10개 값은 2주 전보다 5.4% 내린 8750원에 팔렸고, 같은 기간 애호박 1개는 20% 하락한 1120원에 거래됐다.

반면 김장철로 인한 수요가 증가한 양파 1kg 가

격은 2380원으로 2주 전보다 4.8% 올랐고, 굴 1kg도 1만8400원으로 3.3% 상승했다.

작황이 부진한 마른고추(600g)는 1년 전(1만 원) 가격보다 32.0% 뚝 1만4000원에 거래됐으나 정부 비축물량 방출 영향을 받아 2주 전 가격과는 같았다.

aT 관계자는 향후 2주간의 전망에 대해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 관련 품목은 소비가 활기를 띠겠지만, 배추·무는 생산량 증가 및 출하지역 확산에 따른 공급물량 증가로 가격 안정세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송중욱 광주은행장 “후배에게 길 열어주겠다”

### ‘4연임’ 앞두고 사의 표명

송중욱(사진) 광주은행장이 22일 사의를 표명했다.

송 은행장은 차기 광주은행장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4연임’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며 용퇴를 결정했다.

광주은행은 이날 송 은행장이 JB금융지주 이사회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송 은행장은 지난 2017년 9월 최초 자행 출신 광주은행장에 선임된 뒤 5년여 동안 재임했다.

그는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은행장으로 일한 5년여 동안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기반을 다져놓은 점을 뿌듯하게 여긴다”며 “수개월 동안 고심했



다.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 주며 박수받을 때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차기 광주은행장도 자행 출신을 발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인선은 연말까지 마무리한 다는 방침이다.

향후 광주은행장 선출은 JB금융지주 자회사 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선출해 광주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주주총회를 열어 최종 후보가 은행장으로 선임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공정한 조합장 선거 펼쳐졌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고성산·맨 앞 오른쪽)와 광주 14개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예정자 등이 22일 광산구 우산동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공명선거 실천 교육 및 결의대회’를 열고 금품선거 척결과 공정한 경정을 다짐하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 호남권 5개 광역정수장 안전성 ‘국제 인증’

### 화순정수장·장성 평림정수장 등 ISO 22000 획득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본부에 소속된 호남권 5개 광역정수장 모두가 국제표준 규격 인증을 획득했다.

영·섬본부는 호남권 5개 광역정수장이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국제표준 규격인증 획득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광역정수장에는 화순정수장과 장성 평림정수장, 순천 별랑정수장, 장수 동화정수장 등이 포함됐다.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 기구(ISO) 인증시스템이다. 식품을 생산하고 제

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표준 규격이다.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호남권 광역정수장에서 생산·공급되는 수돗물은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김현식 영·섬유본부장은 “수돗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번 인증을 통해 국제 기준에 맞는 수돗물 위생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미성년 자녀 둔 광주 기혼여성 “일할 곳이 없어요”

### 올 상반기 고용률 51.4% ‘역대 최저’...전년비 5.1%p 하락

미성년 자녀를 둔 전국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올해 최고를 기록했지만, 광주는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15~54세 기혼여성(유배우·이혼·사별 포함) 중 18세 미만 자녀와 동거하는 전국 여성의 고용률은 57.8%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광주 고용률은 51.4%로, 전년보다 5.1%포인트나 하락했다. 이 같은 하락 폭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크다.

광주 고용률은 울산(49.5%)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다.

전남은 지난해보다 1.4%포인트 오른 64.0%를 나타냈다.

광주지역 미성년 자녀 동거 여성은 지난해 14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 감소했고,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 여성은 8만3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9000명 줄었다.

전남지역도 자녀 동거 여성이 4000명 줄었지만, 자녀 동거 취업 여성은 1000명 줄어드는 데 그쳐 고용률은 1년 전보다 올랐다.

광주 자녀 동거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지난 2017년 61.3%까지 올랐다가 58.2%(2018년)→58.1%(2019년)→56.2%(2020년)→56.5%(2021년)→51.4%(2022년) 등으로 내려갔다.

강동환 통계청 사회통계과 고용통계과 사무관은 “올해는 미성년 자녀 동거 취업 여성이 늘어난 첫째(1만6000명↑)라며 “광주와 같이 취업 여성과 고용률이 줄어든 지역은 비대면 일자리 수요 등 고용 시장 구조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15~54세 기혼여성 가운데 경력이 단절된 비율은 광주 18.2%·전남 14.3%로, 광주는 1년 전과 같았고 전남은 0.8%포인트 내려갔다.

광주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2020년부터 3년 연속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광주 15~54세 기혼여성은 24만7000명이었고 이 가운데 경력단절여성은 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남 기혼여성은 지난해 25만1000명에서 올해 24만5000명으로, ‘25만명 선’이 무너졌다. 전남 경력단절여성은 3만5000명으로, 1년 새 3000명 줄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05.27(-14.23)
↓ 코스닥	712.26(-6.31)
↑ 금리(국고채 3년)	3.844(+0.007)
↑ 환율(USD)	1356.60(+1.90)

## ‘연 매출 1000억’ 지역 벤처 3곳 늘었다

### 광주·전남중기청, 26곳 발표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기록한 기업이 26개사로 전년 대비 3개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는 이날 “2021년도 기준 벤처천억기업 실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도 말 기준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을 달성한 광주·전남 벤처천억기업은 총 26개사로 전년 말 23개사보다 13%(3개사) 증가했다.

광주지역 벤처천억기업은 ▲뉴모텍 ▲뉴서광 ▲대신정보통신 ▲대용에스엔티 ▲디에이치글로벌 ▲디케이 ▲무등기업 ▲아르네코리아 ▲하남전기 ▲한국프라임제약 ▲호원 등 11개사다.

전남지역은 ▲DSR제강 ▲다스코 ▲대양반지 ▲동아스틸 ▲세아엠엔에스 ▲유한기술 ▲이맥솔루션 ▲재원산업 ▲정다운 ▲케이씨 ▲케이케이엠씨영농조합법인 ▲탑선 ▲탑솔라 ▲하이테크엔지니어링 ▲한택전자 등 15개사다.

이들 기업들의 평균 종사자수는 2020년 200.2명에서 지난해 212.0명으로 11.8명(5.9%)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생활가전 부품제조 선도기업인 뉴서광은 이번에 처음 매출 1000억원을 달성했고, 가정주방용 전기전자제품 전문업체 디에이치글로벌은 3년 연속 20% 이상의 매출액 증가율을 보여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가젤형 벤처천억기업’에도 이름을 올렸다.

가젤형 벤처천억기업은 3년 연속으로 20% 이상의 매출액 증가율을 보인 기업을 뜻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